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4월 8일

## CUOMO 주지사, 제2회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일주 서밋 개최

**새로운 판촉 캠페인은 이전 투입을 증대하고 민간 부문 분담금을 보충할 것입니다**

**공개된 법안은 산업 성장을 더욱 도모하고 주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농장 기반 음료 면허 개혁을 추진**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제2회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일주 서밋 개최하였습니다. 그는 주정부가 뉴욕주의 음료 생산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한 600만 달러 마케팅 및 판촉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2년 제1회 서밋에서 출범된 캠페인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의 서밋은 주의 음료 산업이 시현하는 급속 성장을 가속화하고 장기화하기 위한 노력에 농업 생산자 및 공무원들과 함께 농장 기반 음료 부문을 동참시켰습니다. 오늘의 서밋에서 주지사가 한 발언이 담긴 TV급(h264, mp4) 비디오가 [여기에](#) 있고, 주지사의 발언 오디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새로운 마케팅 및 판촉 캠페인에 의거 뉴욕주는 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지출에 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100만 달러는 광고 캠페인에 100만 달러는 관광진흥 자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및 과일주의 마케팅 및 판촉을 위한 업계 분담금에 200만 달러를 매칭하는 200만 달러 교부금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입니다. 본 교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체에는 그 일차적 목적 및 사명이 뉴욕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및 과일주의 판촉 및 마케팅인 비영리 단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농업과 관광업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농장 기반 음료 산업 투자가 주 전역의 소기업 소유자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안 및 조치는 농장 기반 음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만들 것이며 주 전역의 생산자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새 시장을 열 것입니다. 오늘의 서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인데, 본인은 우리 생산자들이 민간 부문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번영하고 세계 어디서든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Korean

제1차 서밋 이래 음료 산업이 새 시장을 열고 전세계에 그 가시성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번영하는 신사업을 창조하고 농관광 기회를 증대하며 주 전역에 일자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 1/4분기 이래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는 주정부 조치로 농장 기반 음료 면허가 83% 성장하였습니다.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Finger Lakes에서부터 Long Island까지 뻗어있는 수상에 빛나는 우리의 소규모 맥주 및 포도주 양조장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소규모 장인 증류주 및 과일주 메이커들을 포함하여 농업 기반 음료의 리더로 지동상에 우리 주를 각인시키는 일단의 기업과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음료 산업을 보장하기 위해 Cuomo 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이 정신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공해도 여기 뉴욕주에 머물도록 합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의 하나이고 경제 발전을 위한 빌딩블록입니다. 우리의 싹이 트는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일주 생산업은 우리 주와 지역 경제에 극히 소중하며 Hudson Valley로부터 Lake Erie 연안까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산업을 더욱 보양하고 이러한 ‘메이드인 뉴욕’ 제품을 전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하원 다수당은 포도주, 맥주, 증류주 양조업자, 농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농장 기반 음료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추가 조치와 노력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4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일주 서밋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새 법안**

Cuomo 지사는 오늘 증류주 제조 면허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생산 한도를 올리고 면허료를 내리며,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출하 법률을 현대화하며, 소규모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 공급하고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 소매점을 늘리기 위한 종합적 개혁안인 Craft New York Act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Cuomo 지사는 주 전역에 와인 트레일을 행정적으로 지정하는 법정 권한을 농업시장부에 부여하여 와인 트레일 장소 지정을 2년에서 약 4~5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존 법률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 조치**

뉴욕주 주류청(SLA), 농업시장부 및 세무재정부는 이전에 음료 산업 내에 혼동을 야기하였던 법규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는 발표문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발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본

산업 내 추가적 성장을 추진할 다양한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특히 SLA는 불필요한 서류를 제거하고 브랜드 라벨 등록과 맥주 및 과실주 용기 판매에 대한 기준을 규명하며; 농장 와이너리가 채권을 구입할 필요성을 제거하고; 한 출하에 모든 제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 면허를 가진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들의 비용을 줄이며; 누가 해당 면허를 딸 수 있고 무슨 장소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도로변 농장 시장법”과 관련하여 업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또한 SLA는 조업 시작일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 면허를 양조업체에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시장부는 호프 생산자들이 제품을 펠렛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식품 제조 면허의 수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여 2년 면허에서 \$400를 절약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농업시장부는 농장 포도주, 증류주, 맥주 업체들에게 한 것처럼 농장 과실주 업체의 식품 가공 면허 취득을 면제할 것입니다.

세무재정부는 알코올 음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옵션을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연장함으로써 농장 증류주 업체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재정부는 포도주 시음과 관련하여 판매세가 면제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행할 것입니다.

### **Taste NY 마케팅 및 관광 기회**

노출과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뉴욕주 주류 판매점에서 Taste NY 마케팅 및 브랜딩 프로그램이 창설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포도주와 증류주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해 Taste NY 표지판을 선반에 포함하고 상점 주인이 다양한 뉴욕주 브랜드가 눈에 띄게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Pride of NY 식당 및 서약에 참여하는 식당의 수를 3배로 늘리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식당들은 뉴욕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조달, 마케팅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제품 이용을 10% 이상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Lake Placid Adirondack Challenge에서 발표된 주지사의 I SKI NY 버스 프로그램을 토대로 뉴욕시로부터 주의 Finger Lakes, Mid-Hudson, Long Island, Niagara Escarpment 및 Thousand Island 지역에 있는 와인 및 음료 트레일로의 투어 및 접근을 위해 봄, 여름, 가을 달들 동안 Taste NY 버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위의 이니셔티브 이외에 오늘의 서밋 동안에 다음 관광 기회가 공개되었습니다:

- 주정부는 Finger Lakes 와인 트레일 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해 Sampson 주립공원에 임대 오두막을 건설할 것입니다. 185만 달러의 NY Works 예산으로 Seneca Lake의 동부 연안에 16채의 새 임대 오두막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Seneca 와인 트레일 상에 그리고 Cayuga 와인 트레일 인근에 있습니다.

- 뉴욕주는 개최되는 Taste NY 행사의 수를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2배로 할 것입니다. Taste NY는 음료 산업과 협조하여 그들 제품의 노출 및 판매에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식별하였습니다.
- 뉴욕주 제품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Taste NY 대사들이 선임될 것입니다.
- 뉴욕경마협회의 Saratoga Race Course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알코올성 음료 및 식품을 특정 일에 홍보할 것입니다.
- 최초의 공식 뉴욕주 페어 비어가 금년 여름 나중에 12일간의 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 주지사의 Wine Cup Tour가 다시 이번 8월에 개최될 것입니다.

## 윈스톱 샵 2.0

2013년에 Cuomo 지사는 법규, 인허가, 주 인센티브 그리고 이 산업이 직면한 기타 문제와 관련해 지원할 목적으로 뉴욕의 포도주, 맥주 및 주정 생산업체에게 정부의 단일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한 윈스톱 샵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서밋 결과로 이 윈스톱 샵은 이제 농장 기반 음료 산업에 가용 주 금융 옵션을 마케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을 음료 생산자들에게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이 출범하고, ESD에 소규모 음료 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멘토 프로그램이 개시될 것이며, 주정부 운영 웨비나가 다양한 업계 관련 주제로 개최될 것입니다.

## 재배자 교육 및 연구

뉴욕주는 통합적 방제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리 연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호프 발굴 전문가를 확보하며, 정부와 업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소규모 맥주 양조자와 업계 실무 그룹을 설립할 것입니다.

## 재난 구제

업계 리더들로부터의 피드백의 결과로 Cuomo 지사는 농업시장부에 연방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근의 심한 날씨 사례에 의해 입은 피해로부터 업계가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농업시장부는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파악하며 재배자들이 가용 교부금 흐름과 연결되도록 돕고; 피해 정도를 조사할 것이며, 공급이 필요한 경우, 농장 와이너리가 뉴욕주 바깥에서 재배된 포도를 구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허용하며; 포도를 위한 작물보험 문제와 보리와 호프 짚짓기를 위한 도구에 대한 미 농무부와의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부장 대행인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주정부는 제가 본 다른 어떤 행정부보다 뉴욕주 농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위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뉴욕주의 농장 기반 음료 산업에서 그것을 보고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첫 번째 음료 서밋 이후에 우리는 주생산 음료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윈스톱 샵을 포함하여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48억 달러 와인 및 포도 산업으로부터 전례 없는 우리 증류주 업체의 성장까지 음료 산업은 번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서밋은 소규모 음료 생산의 선도적 허브로서 뉴욕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뉴욕주 주류청장 Dennis Ros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밋은 소규모 제조업체, 업계 전문가, 농민과 행정부 관리들을 불러모아 이슈를 의논하고 뉴욕주 의 소규모 음료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게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밋들이 상당한 규제 개혁, 법률 변경 및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을 포함한 조치로 지난 3년에 걸쳐 뉴욕주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및 과실주 양조업의 엄청난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통부 부장 Joan McDona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소 기업을 위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 교통부는 하이웨이 간판을 개선하고 전주의 관광업 및 지역 비즈니스를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와이너리 및 기타 기업들과 협력해왔습니다.”

고속도로청 및 Canal Corporation의 총책임자인 Thomas J. Madi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맥주, 포도주, 과실주, 증류주 업체들을 뉴욕주의 고속도로 및 운하 회랑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이 비즈니스가 자체의 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의 전체 경제를 위해 갖고 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고속도로청과 Canal Corporation은 관광객이 이러한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을 돕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에게 배로든 자동차로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술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실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뉴욕주의 성장하는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